



허정림 | 환경공학박사 /
(사)한국환경교육학회 총무이사
(jr529@naver.com)

하천이야기

강의 보존을 위한 생각 나눔

이상한 여행가방

야호! 방학이다. 앙육이네는 여행준비를 합니다. 여행가방을 볼까요?

1. 개인별 산소호흡기
2. 자외선 차단 보호복
3. 휴대용 물정화기
4. 휴대용 자기발전기
5. 인스턴트 캡슐용 음식보조제
6. 비상용 호신도구



정말이지 이상한 여행가방입니다. 예전에 앙육이가 어렸을 때 챙기던 물놀이 튜브랑 수경이랑 과자들은 온데간데없고 이상하고 무거운 기계들이 가득합니다.

“엄마! 여행가방이 놀이기구도 맛있는 과자도 없고 뭐 이상한 기계들만 잔뜩 있네요?”

“그래~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막이 없는 집을 떠날 때는 이런 기계들이 꼭 필요하단다.”

“그림책에서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은 언제나 만날까요?”

“글쎄다. 예전에 조금만 자연을 사랑하고 아꼈다면 이런 슬픈 날이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

“엄마! 제가 꼭 이 지구를 다시 예전의 푸르른 지구로 만들기 위한 발명가가 될 거예요!”

“앙육아! 이미 너무 망가진 지구는 예전처럼 푸른 지구로 되돌아갈 수가 없단다! 예전에 희망이 있었을 때, 생명이 있는 모든 지구 친구들을 사랑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세상은 온통 회색빛입니다.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모두 기계에 의존하며 실내에서만 생활합니다. 실내는 인공산소와 조명으로 생존하지만 외부에 나갈 경우에는 산소호흡기와 호신도구, 특수복장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 잘못했어요!! 엄마! 지구를 못살게 괴롭히지 않을게요! 지금부터라도 잘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회색빛 지구는 싫어요! 푸르른 지구를 사랑할게요!!”

앙육이는 소리를 칩니다.

“앙육아! 무슨 꿈을 꾸는데 잠꼬대니?”

엄마는 웃으면서 늦잠꾸러기 앙육이를 깨웁니다.

“휴우~ 꿈이었구나!!”

장난꾸러기 앙육이는 급히 창문을 열어봅니다. 싱그러운 바

람이 코끝에서 살랑입니다. 문득 따사로운 햇살도 앞마당의 나뭇잎 하나도 새삼스레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소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하고 위협천만 한 세상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환경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보존하고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감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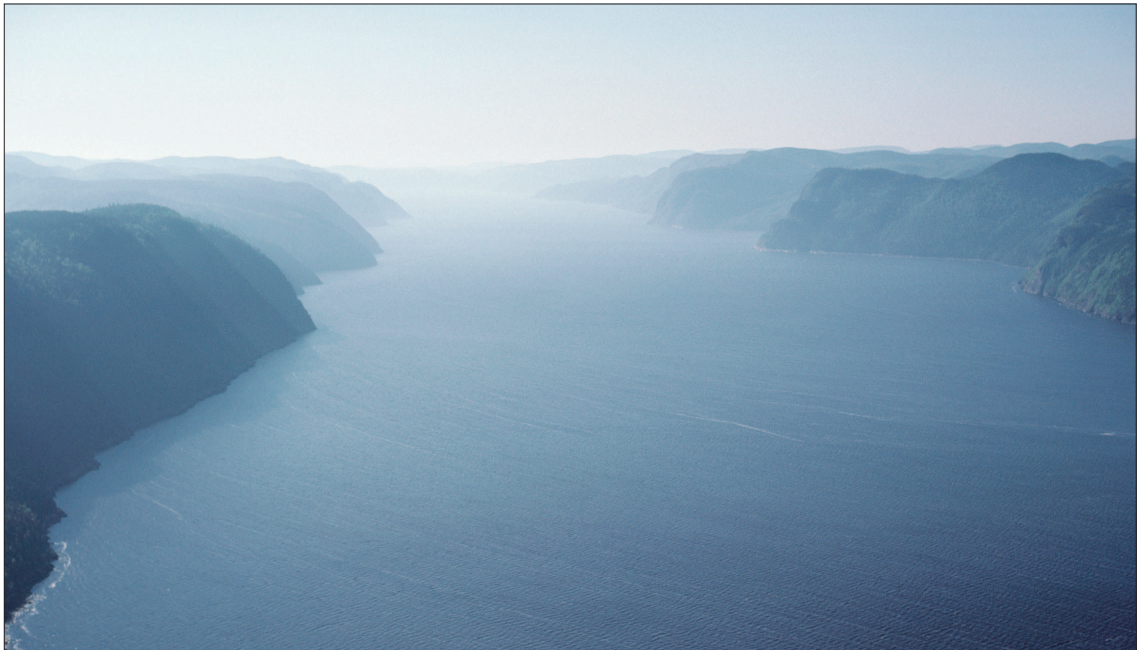
지구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 위기의 현실은 환경의 인식은 높아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과도한 산업화의 가도를 달리는 인간행위로부터 기인한다. 이로 인한 오염이 소중한 자연계의 자원들을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잘 알고 있으나 개발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인은 맑은 물과 공기, 건강한 나무의 가치를 또한 잘 알고 있으며 후손들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생물권인 지구를 위협하는 요인에 관한 인지도가 날로 높아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고갈되어가는 수자원을 다시 살려내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

이 이제까지 보다 훨씬 비장한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수자원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그것이 각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는 작은 일이든 아니면 어떤 강을 보존하기 위한 기금 모금에 참여하는 것이든 모두 귀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물의 소중함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와 감사의 마음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작은 움직임의 의미는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 선사 때부터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생물들의 삶을 지탱하고 양육해온 소중한 물을 보존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인류와 지구의 역사에서 공히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환경오염과 밀림의 파괴, 수많은 동식물의 멸종, 오존층의 파괴와 온실효과 등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소명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할 소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보다 열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지도 모를 아이들에게 환경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환경보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부모의 과제이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아



이들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 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그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허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진이나 해일, 태풍, 가뭄, 또는 홍수와 같은 파괴적인 힘을 통하여 자연은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좋은 교사노릇을 한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환경교육의 방향은 잘못되어 왔다. 언제부터인가 환경교육은 환경파괴, 오염문제 등이 중점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환경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여주고 그러하기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접근방식이 훨씬 좋은 환경교육의 방법임을 잊지 말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 나아가자. 여행가방을 꾸려 가족이 모두 자연을 탐색하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여행을 가자. 그것이 바로 환경파괴의 위험을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 훨씬 자연의 숭고함을 배우고 환경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부모의 환경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어야 하고 바른 환경 교육적 철학을 지녀야 하는 이유이다.

물과 개발의 문제

자연환경의 구조를 무시하고 주택 또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일 또한 재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바다가 내려 보이는 모래 언덕에 주택지를 조성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는 자연상태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조화롭게 평형이 유지되었을 때 해안의 침식과 재생 사이클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간척지에 만든 농장도 강과 바다의 조수간만 작용을 방해한다. 또한 인위적으로 댐과 제방, 수로를 건설하여 자연스러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바꾸는 일도 자연의 재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동물, 식물, 곤충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작용까지 가져온다. 거대한 댐의 건설은 인간집단이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을 통째로 삼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강한 폭풍이 몰아쳐 댐이나 제방과 같이 인간이 만든 기구

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면 필연적으로 큰 홍수 피해가 따른다. 수리학자들은 홍수를 자연적으로 조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강물의 흐름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농장과 주거지를 또는 상가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 지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Tip: 인재에 의한 자연재해 사례

1. **베네수엘라대 홍수(1999)** - 도시를 확장하고 가축의 먹이와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공급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열대우림을 파괴한 재림작업이 원인. 열대의 숲의 나무와 식물들의 뿌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만드는 그물망은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고 토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숲을 없애면 빈 땅은 이러한 조절능력이 상실되며 결국 큰 홍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괴가 따른다.
2. **양쯔강 대형댐 수몰** - 양쯔강을 따라 건설되는 3개의 커다란 골짜기의 댐건설로 최소 7만 명의 주민이 이주해야 하고 수천 개의 사찰과 신전이 수몰되었다.
3. **콜로라도 강 글렌케니언 댐(1963)** - 이 댐이 완성되면서 형성된 저수지인 파월호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호수이다. 또한 주변의 사막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이다. 그러나 1983년 이 저수지가 거의 넘칠 정도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사암으로 만들어진 배수구에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일 이 댐이 무너진다면 강의 하류에 있는 여섯 개의 댐 중 적어도 하나가 더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걸친 무절제한 벌목과 가축 방목에 의해 초지의 파괴, 잘못 설계된 관개시설과 시냇물의 고갈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되는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마시고 씻기 위하여 또 집을 청소하고 의복을 세탁하는 일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을 끄고, 여러 종교에서 정화의식이나 세정식을 거행하는데도 물을 필요로 하며, 병을 치료하



고 농작물에 관개수를 대며 나아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구도의 과정에서도 물을 사용한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물은 농경과 건축, 물자의 수송 및 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한 중추적인 요소였다. 또한 물은 우주의 모든 항성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 감성적, 영적인 행복의 중심에 놓여 있기도 하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물의 보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연계의 자가 치유력과 조화를 이루는 좋은 생활방식들을 습관화한다면 이는 곧 지구 전체의 손상된 환경을 치료하고 복원하는 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자의 집에서 소비하는 물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해서 자신의 삶의 형태에 맞게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샤워기나 수세식 화장실의 수압을 약하게 조절하거나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욕조에 물을 받아서 하는 목욕방식을 버리고 샤워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는 곧 물의 절약을 의미한다.

아무런 불편 없이 물이 절약되는 방법은 많다. 다만 습관이 안 될 뿐이다. 애리조나 주 텍슨 시의 주민들은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주민 한 사람당 소모하는 물의 양을 미국 전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들었다.

물을 아끼는 것이 곧 강을 사랑하는 일이며 동시에 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배출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습관의 문제로 생활 속의 실천이 중요하다.

Tip: 생활습관 속 물 절약 노하우

1. 샤워나 비누칠을 할 때 수도물을 잠근다.
2.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이용한다.
3.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하지 말고 샤워를 한다.
4. 화장실 변기에 벽돌이나 페트병을 넣어둔다.
5. 절수기를 단다.
6. 물이 새는지 확인하고 수도물의 누수를 막는다.
7.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한다. 설거지와 목욕물, 세탁 후 물을 청소나 화단에 준다(이때 인산이 첨가된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8. 마당에 자생하는 식물을 심어 물을 절약한다.

- 9. 공산품을 생산하는데도 물이 사용되므로 물자를 아껴 쓰자.
- 10. 전기 또한 물의 사용이 큰 영향요소이므로 물 절약은 곧 전기절약이다.
- 11. 절전형 가전제품을 이용한다.
- 12. 육류와 서구적 식습관을 버린다. 가축이 먹는 물의 양과 소비가 엄청나다.

물의 치수와 재활용 방법

최근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수자원을 보다 현명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지구상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소중한 물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쓰이는 물 중 적어도 1/3은 (한 사람 당 50 리터에 해당된다) 문자 그대로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렇게 수세식 변기와 주방 개수대를 통하여 흘러가는 물을 활용할 방안을 찾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중국 일부지역은 이런 물을 정원용수로 재활용하여 식물로 하여금 물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 이스라엘에서도 하수구를 통해 나가는 물의 70%에 달하는 양을 적절한 처리과정을 통해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에 들어오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16% 정도도 이러한 재활용수로 충당하고 있다.

사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변물을 그대로 물로 씻어 내보내면 하수처리장에서 이 오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한 좋은 해결책이 항공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위 '진공식 화장실'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다. 이 변기는 약 반 리터 정도의 물만 사용하여 오물을 저장하는 탱크로 씻어 보내며 이것을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혼합비료로 만들거나 또는 이를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후진국에 살고 있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하루 동안 소모하는 열량의 1/3을 물을 길고 운반하는 일에 들이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데 과거 수년 동안 이들 후진국에서 실시된 물 보급사업은 대부분 산업화된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따른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비용을 많이 들였으나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하여 각 지역의 필요에 맞도록 사려 깊게 고안된 물 보급사업은 모터 대신 중력 또는 수동식 펌프를 이용하거나 모래와 자갈을 섞어 만든 정화장치를 사용하는 등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큰 효율성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이처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을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게 각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위생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수자원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현재 인류사회에서 물을 절약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 중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부분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안해 냈다. 관개시설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한편 안개 또는 바람을 이용하여 공기 중의 습기를 조절하며 온실에서 증산 또는 증발된 수분을 다시 모아 사용하는 폐쇄식 수경재배 등 물의 사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그 재활용률은 최고로 높이는 방법을 개발해 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농작물에 물을 줄 때 수압을 낮춤으로써 농업용수의 사용을 30% 가량 줄이는데 성공하였고 또 작물을 심기 전 땅을 고르는 작업에 레이저를 대신 사용하여 60%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토양의 침식과 사막화를 막고 그 지역의 강우량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밖에도 사막을 비롯한 건조한 지역의 농경지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로 재배하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물을 절약하고 자원화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제외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의 사용처는 화장



실 변기일 것이다. 과연 변기의 물을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 아예 물이 없이 변기를 사용한다면 과연 획기적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을 소개한다.

물 필요 없는 화장실 등장... '하루 유지비 단돈 50원!'

빌 게이츠 재단이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을 만드는 이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위생적이고 값이 싸면서 물을 낭비하지 않는 변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빌 게이츠 재단은 "많은 국가가 물 부족으로 인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25억 인구가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며 이 때문에 매년 150만 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빌 게이츠 재단은 '화장실 재발명 박람회'를 통해

소변을 물로 바꿔 청소에 사용하는 변기를 소개했다. 이 변기는 소변을 물로 변환해 변기를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하루에 단돈 50원이면 유지가 가능하다. 빌 게이츠 재단은 "디자인적으로 보완해 3년 안에 빈곤 국가에 이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는 저개발국의 위생 시설에 혁명이 될 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들의 전통적인 수세식 변기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12-08-23 11:53

한강이 주는 의미

물의 중요성을 알고 다시 보는 한강의 의미를 새겨보자. 과연 한강의 가치는 얼마일까? 한강 하구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얼마 전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강 하구 습지의 가치를 계산한 적이 있다. 수산물 생산 기능, 수질정화 기능, 어류 서식지 기능, 여가 기능 등을 모두 따졌을 때, 습지 전체의 경제적 가치는 1년에 약 7,336억 원이라고 한다. 10년간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무려 7조원의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하구와 습지는 그런 화폐까지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 새들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으므로 생명은 결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 한강 하구 역시 값어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한강 하구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곳'이라는 사실이다(박경수, 2005).

한강 하구 바로알기는 한반도 생태축의 1번지가 바로 한강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누가 "한강 하구가 왜 중요하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 또는 생태계의 보물창고라서? 둘 다 좋은 대답이지만 다음의 이유 때문에 한강 하구엔 이외에도 여느 지역의 생태계와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1. 독으로 막히지 않는 마지막 큰강 하구

한강은 우리나라의 큰 강들 중 하구에 기수역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강이다. 기수역은 담수생태계(민물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대강 중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모두 하구독으로 막힌 채 바다와 단절되어 있다. 4대강 못지않던 만경강-동진강

하구 역시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바다와 헤어지는 비극을 맞았다.

2.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접경지역 생태계

한강 하구는 분단으로 인해 50년간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채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해 온 곳이다. 유네스코에서는 2개국 이상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중 생태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을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BR)'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아무르강-흑룡강'지역, 홍콩과 중국의 접경지였던 '마이포 습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강 하구 역시 그 대상 지역이며 세계에서 단 하나 뿐인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DMZ와 서해, 경기만을 잇는 생태축의 중심

한강 하구는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DMZ(비무장지대) 생태계와 서해의 해양생태계를 잇는 중요한 통로이다. 남쪽으로는 인천 영종도 갯벌과 송도 갯벌을 거쳐 경기만과 아산만으로 이어지는 서해 연안습지의 연결축이기도 하다. 이렇듯 중요한 생태계들은 동서남북으로 이어주는 한강 하구는 '한

반도 생태축의 1번지'라고 불리운다.

4. 동북아시아 물새들의 서식지 겸 이동 통로


한강하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동하는 도요새, 물떼새, 오리류, 기러기류, 두루미류, 저어새류, 갈매기류, 백로류, 독수리류 등 다양한 물새들의 번식지, 월동지 또는 중간 경유지이다. 시베리아나 몽고에서 일본과 호주로 이어지는 철새들의 '태평양 이동통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하구는 이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생태계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처럼 한강은 서울시민의 생명의 강이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공존하는 환경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값진 보물이다. 이러한 멋지고 귀한 송고함마저 갖든 한강을 가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하기에 한강을 보존하고 그곳의 생태계를 함께 공유하여 공존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겸허하고 정직하게 한강을 대하고 사랑하자.

물과 철학: 물을 대하는 태도

지구상의 물을 보호하고 또 보존하는 것을 의무나 과제로 생각하여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능동적인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 유명한 인도의 사상가인 크리슈나무르티에 따르면 명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순간을 잡념 없이 집중적으로 인식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우리도 물을 대함에 있어 하루 중 아침에 샤워를 할 때,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수세식 변기의 물을 내릴 때, 또는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물의 고마움을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또 이처럼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순간 이외에도 멋진 분수를 감상하거나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때,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 거품 속으로 걸어들어갈 때, 또는 우산 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산책할 때도 물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

게 하다보면 우리 자신의 내부에 물에 대한 인식이 새겨져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의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듯 각 개인이 인간사회에서 하나하나의 세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작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나다니엘 엘트먼, 2003). 

참고문헌

나다니엘 엘트먼(2003), 「물의 신화」, 해바라기.
박경수(2005), 「철새지킴이 노빈손, 한강에 가다」, 프인돌.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12-08-23 11:53.

